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사회적 대화 2.0’ 시대 연다

- 노사정,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 -



▲ 3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본위원회 출범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노동정책 토론회를 마친 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9일 오전, 청와대 총무실에서 개최된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이하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본위원회 >

이번 본위원회는 그간 중단되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공론장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을 포함한 17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등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 * ▲(특별위원회: 1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 ▲(의제별위원회: 5개)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도개선 위원회
- ▲(업종별위원회: 1개)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

먼저, 특별위원회로 추진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행되는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

되는 첫 사회적 대화 사례로 운영되며, 경사노위는 이를 모범 사례로 만들어 사회적 대화 과정 전반으로 지속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제별위원회로는 먼저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를 구성하여, AI 도입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산업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 지원 방안,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노사 협력 모델 개발 등을 다룬다.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직장내 괴롭힘 제도 개선(별도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우선 논의한다.

업종별위원회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를 추진한다. 지역 특화 산업 불황에 따라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등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타 지역특화산업 등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우수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 3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1기 노동정책 토론회. (좌)발언을 듣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우) 같은날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 김지형 위원장이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 사회적 대화 2.0 의제 >

분류	위원회	주요 논의 과제
특별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 세대 상생,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완화 등 폭넓게 논의 * 노사 및 이해당사자, 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
의제별 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 청년 고용서비스 강화 -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등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축소를 위한 노사정 협력 모델 모색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	- 근무시간 면제 및 교섭제도 등 노사관계 제도 개선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	- 집단적 노사관계: 자율적 노사관계-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 등 제도 개선 과제 -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과제(분과위원회 추진)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 산업현장 AI 도입 및 활용 지원 방안 -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노사협력 모델 개발 등
업종별 위원회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	- 산업 불황에 따른 고용·지역경제 영향 파악, 고용·지역경제 지원·협력 방안
계층별 위원회	○청년 위원회 ○여성 위원회 ○비정규직 위원회 ○소상공인 위원회	
연구회·포럼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 ○석탄·화력발전 산업의 공정한 전환 연구회 ○보건의로 지속가능 정책 연구회 ○조선업 포럼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사회적 대화 2.0’

노·사·정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 AI·녹색 전환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와 저성장,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 및 지역 소멸 등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공감한다. 이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새롭게 열어 노·사·정 상생의 여정을 시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노·사·정은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성장 동력 저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상호 신뢰와 양보, 협력을 통해 상생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한다.

둘째,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AI·녹색 전환과 인구 구조 변화라는 도전에 맞서 노·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안정이 이루어지는 상생·협력 모델 구축에 자발적으로 매진한다. 특히 신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재편과 격차 발생의 문제를 긴밀한 소통과 타협으로 해결함으로써, 노·사가 함께 노동의 가치 존중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다. 정부는 노·사의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대화 체계를 개선하여 사회적 대화의 중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시스템을 재구축한다.

노·사·정은 사회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조정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구축하기로 선언한다. 이를 위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 산업 안전, 노사관계 발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의제를 우선 논의하고 업종별·지역별·계층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숙의와 경청이 일상이 되는 성숙한 민주적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노·사·정은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민주적 경로로서 사회적 대화를 전면 복원하면서, 대전환기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 대표자는 정례 만남을 갖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노·사·정은 복합 전환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참여하고, 소통하며 행동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 토론회 >

본위원회 직후 개최된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대통령과 경사노위 위원 16인, 청와대 주요 수석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과정은 K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토론에 앞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새 정부 경사노위 1기 추진방향을 보고하며, 앞으로의 경사노위가 열린 대국민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노사정 대표자들은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출발과 동시에 노사정의 협력 의지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약속하기 위해 발표되는 공동선언은 노사정이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노동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고, 복합 대전환의 위기 앞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상생 의지가 담겼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노동”과 “기업”의 시각으로 본 양극화 진단과 해소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시작되었으며, 각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대통령 및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의 토론이 오고 갔다.

한편,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지형 위원장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경사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마침내 재개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며, “사회적 대화 2.0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와 경청을 기반으로 하는 공론화 기법을 도입하여 국민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정이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esc**

담당 기획과 최영욱 사무관

<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명단 >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위원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이정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계 위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정찬호	(비정규직)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
	한다스리	(청년)국제의료재단노조 위원장
경영계 위원	최미라	(여성)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공익위원	송치영	(소상공인)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두용	한성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위원	엄창환	심오한연구소 연구위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현장방문

- 3.13.(금), 사무금융업종 노동계 현안 청취 -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3월 13일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나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3월 13일 오후,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을 방문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정 관계와 사회적 대화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AI·디지털 전환과 금융산업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한 사무금융업종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기술 변화가 노동자에게 일방적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전환, 교육훈련,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공정한 성과 배분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지금 필요하다”며, “AI 시대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사정이 책임 있는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무금융업종은 국민의 금융서비스와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인 만큼, AI와 디지털 전환이 고용과 노동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고용안정, 금융공공성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이 공식적인 대화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금융노조 의제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업종과 산별 단위에서부터 차분하게 소통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사노위는 앞으로 양대 노총 산하조직과의 만남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사회적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esc**

담당 대외협력실 이현욱 전문위원